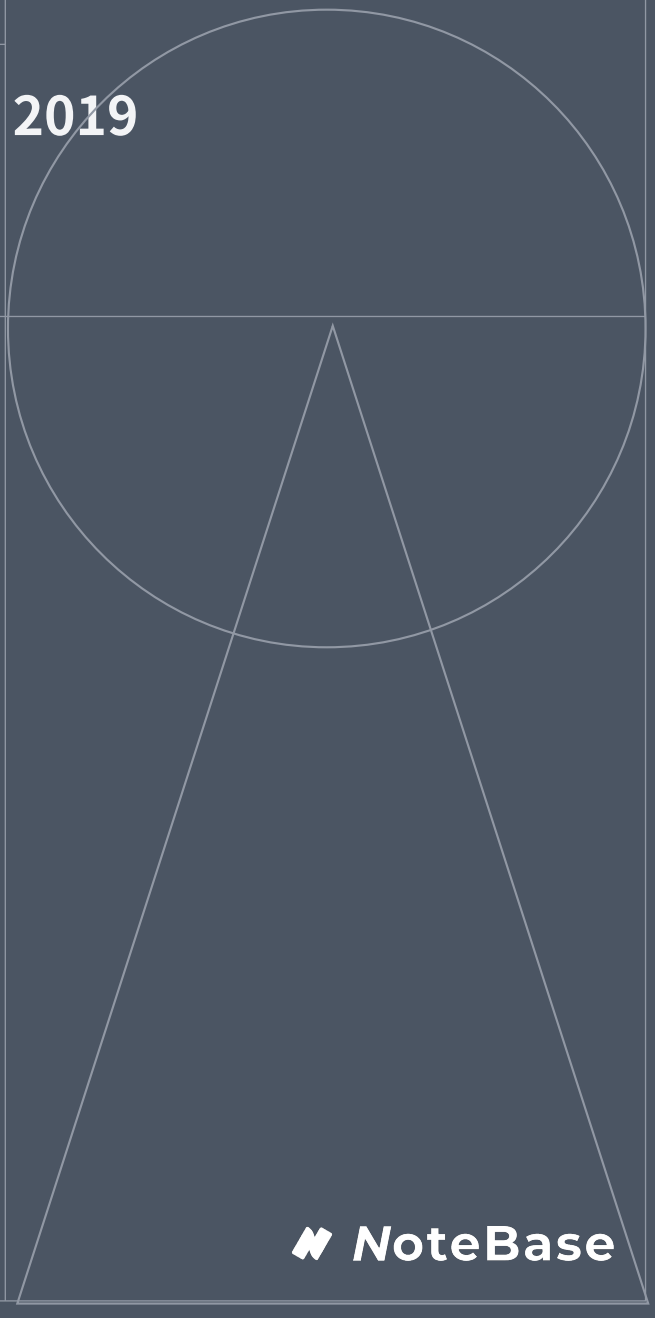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9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9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① 사글세, 멋쟁이, 아지랭이, 윗니
② 웃어른, 으레, 상판때기, 고린내
③ 딴전, 어저께, 가엽다, 귀이개
④ 주근깨, 코빼기, 며칠, 가벼히
⑤ 뭇국, 느즈감치, 마늘종, 통째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단어들이 표준어인지 판별하고, 한 묶음 안의 모든 단어가 표준어인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정한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익숙한 발음대로 적은 형태가 아니라 표준어로 인정된 형태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지랑이, 상판대기, 가벼이, 느지감치의 정확한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글세, 멋쟁이, 윗니는 표준어이지만 아지랭이는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인 아지랭이는 아지랑이로 고쳐야 한다.

② X
웃어른, 으레, 고린내는 표준어이지만 상판때기는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인 상판때기는 상판대기로 고쳐야 한다.

③ O
딴전, 어저께, 가엽다, 귀이개는 모두 표준어이다. 가엽다는 가엾다와 함께 쓰이는 표준어이고, 귀이개는 준말 귀개가 아니라 본말이 표준어로 인정된 형태이다.

④ X
주근깨, 코빼기, 며칠은 표준어이지만 가벼히는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인 가벼히는 가벼이로 고쳐야 한다.

⑤ X
뭇국, 마늘종, 통째로는 표준어이지만 느즈감치는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인 느즈감치는 느지감치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상판때기는 실제 발음과 비슷해 맞는 표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어 표기는 상판대기이다. 또한 ③의 가엽다는 가엾다만 옳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쉬운데, 두 형태가 모두 표준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낯선 단어만 보지 않고 네 단어를 모두 독립적으로 판별한다. 실제 발음에 끌리지 말고 아지랑이, 상판대기, 가벼이, 느지감치처럼 표준어로 정해진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아지랑이·상판대기·가벼이·느지감치가 표준형이고, 가엽다와 가엾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NoteBase

2. 다음 (가)~(바)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가) 그러기에 절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금기이다. 하지만 인간의 내부에는 절도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절도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먹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생존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 절도는 범죄지만 인간은 한편으로 그 범죄를 합리화한다. 절도의 합리화는 부조리한 사회, 주로 재화의 분배에 있어 불공정한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도 행위자인 도둑을 찬미하기도 한다.

(다) 따라서 사회적 금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절도를 향한 욕망은 거침없이 드러난다.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그 야수적 욕망의 분출을 목도한 바 있다.

(라) 혹 그 도둑이 약탈물을 달동네에 던져주기라도 하면 그는 의적으로 다시 태어나 급기야 전설이 되고 소설이 된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우리는 일지매에 빠져들고 장길산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다.

(마) 법은 절도를 금한다. 십계 중 일곱 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이며, 고조선의 팔조금법에도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절도가 용인되면, 즉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붕괴된다.

(바) 지위를 이용한 고위 공무원의 부정 축재와 부잣집 담장을 넘는 밤손님의 행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약 그 도둑이 넘은 담장이 부정한 돈으로 쌓아올려진 것이라면 월장은 도리어 미화되고 찬양받는다.

① (마) - (가) - (다) - (나) - (바) - (라)
② (마) - (나) - (바) - (가) - (다) - (라)
③ (마) - (바) - (라) - (다) - (나) - (가)
④ (나) - (마) - (가) - (다) - (바) - (라)
⑤ (나) - (다) - (라) - (마) - (바) - (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어와 접속 표현, 내용의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예시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단의 논리적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마) → (가) → (다) → (나) → (바) → (라)
1. (마): 법과 계명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2. (가): '그러기에'로 (마)의 금지 논리를 이어 받고, '하지만'으로 인간 내면의 절도 욕망을 제시한다.
3. (다): '따라서'로 (가)의 내용을 받아 사회적 금제가 무너지면 절도 욕망이 드러난다는 결론과 LA 폭동의 사례를 제시한다.
4. (나): 절도를 합리화하고 도둑을 찬미하는 인간의 태도로 논의를 확장한다.
5. (바): '그 도둑'을 받아 부정 축재자와 부잣집 담장을 넘는 도둑을 비교함으로써 (나)의 합리화와 찬미를 구체화한다.
6. (라): '혹 그 도둑이'로 또 다른 미화 사례를 덧붙이고, '그렇게 해서'로 글을 마무리한다.
왜 이 순서인가: (가)의 '그러기에'는 (마)의 절도 금지를 전제로 하고, (다)의 '따라서'는 (가)의 사회적 금제와 내면의 욕망을 전제로 한다. 또한 (바)와 (라)의 '그 도둑'은 (나)에서 제시한 도둑의 합리화와 찬미를 구체화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마)의 절도 금지에서 시작해 (가)의 '그러기에', (다)의 '따라서'로 인과 관계가 이어지고, (나)의 도둑 찬미를 (바)와 (라)의 구체적 사례가 받는다.
② X — 틀린 부분: (마) 뒤에 (나)를 놓아 (가)의 '그러기에'가 바로 이어 받아야 할 절도 금지의 근거를 끊었고, (바)를 (나)와도 분리하였다. 올바르게는 (마) → (가) → (다) → (나) → (바) → (라)이다.
③ X — 틀린 부분: (바)를 (나)보다 먼저 놓았다. (바)의 '그 도둑'과 도둑을 미화하는 내용은 (나)의 합리화와 찬미를 구체화하므로 (나) 뒤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마) → (가) → (다) → (나) → (바) → (라)이다.
④ X — 틀린 부분: (나)로 글을 시작하고 (마)를 뒤에 놓았다. 절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논하기 전에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와 인간 내면의 욕망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마) → (가) → (다) → (나) → (바) → (라)이다.
⑤ X — 틀린 부분: (다)를 (가)보다 먼저 놓았다. (다)의 '따라서'는 (가)에서 제시한 사회적 금제와 절도 욕망의 대립을 받아 내린 결론이므로 반드시 (가) 뒤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마) → (가) → (다) → (나) → (바) → (라)이다.

오답 포인트

(나), (바), (라)는 모두 도둑의 합리화와 미화를 다루므로 순서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나)가 일반 진술을 먼저 제시하고, (바)의 '그 도둑'과 (라)의 '혹 그 도둑이'가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 받는다. 특히 (라)의 '그렇게 해서'는 앞선 예시를 종합하는 표현이므로 마지막에 놓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그러기에', '따라서'가 요구하는 앞 문장을 찾고, 다음으로 '그 도둑' 같은 지시어의 선행 대상을 찾는다. 마지막에는 일반 진술 뒤에 구체적 사례가 오는지, '그렇게 해서'처럼 내용을 종결하는 표현이 끝에 놓였는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금지의 근거 → 내면의 욕망 → 욕망의 분출 → 합리화와 찬미 → 구체적 미화 사례의 순서이다.

NoteBase

3. 다음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가) 인물 그려내기라는 말은 인물의 생김새나 차림새 같은 겉모습을 그려내는 것만 가리키는 듯 보이기 쉽다.

(나)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의 대부분을 뜻하는 공간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공간은 이른바 공간적 배경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다.

(다) 하지만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적 존재이고 그가 내면을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면, 인물의 특질을 제시하는 것의 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영화, 연극 같은 공연 예술의 경우, 인물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 무대 위나 화면 속에 자리해 감상자의 눈에 보이는 것 거의 모두가 인물 그려내기에 이바지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라) 그것은 인물과 사건이 존재하는 곳과 그곳을 구성하는 물체들을 모두 가리킨다. 공간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경우에 따라 그곳을 구성하는 물체들, 곧 비나 눈 같은 기후 현상, 옷, 생김새, 장신구, 가구, 거리의 자동차 등을 '공간소'라고 부를 수 있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가) - (라) - (나) - (다)
④ (라) - (나) - (가) - (다)
⑤ (라) - (다) - (가) - (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접속어와 지시어가 앞 문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어받는지 확인하여 문단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가) → (다) → (나) → (라)
1. (가) — ‘인물 그려내기’가 겉모습만 그려 내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일반적 인식을 제시한다.
2. (다) — ‘하지만’으로 (가)의 좁은 인식을 반박하고, 인물의 내면과 인물에 관련되어 보이는 것까지 범위를 넓힌다.
3. (나) — (다)에서 언급한 공연 예술과 감상자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어받아,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화제를 전개한다.
4. (라) — ‘그것’이 바로 앞 문장의 ‘공간’을 가리키며, 공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공간소’라는 말로 구체화한다.
왜 이 순서인가: (다)의 ‘하지만’은 (가)의 통념을 반박하고, (나)의 ‘여기서’는 (다)의 공연 예술 상황을 이어받으며, (라)의 ‘그것’은 (나)의 ‘공간’을 직접 가리키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 뒤에는 그 좁은 인식을 반박하는 ‘하지만’의 (다)가 와야 하므로 (나)가 곧바로 올 수 없다. 틀린 부분은 ‘(가)-(나)’이며, 올바르게는 ‘(가)-(다)-(나)-(라)’이다.
② O — (가)의 통념을 (다)가 ‘하지만’으로 반박하고, (나)가 공연 예술에서 보이는 공간을 도입한 뒤, (라)의 ‘그것’이 공간을 받아 구체화한다.
③ X — (라)의 ‘그것’은 앞서 제시된 ‘공간’을 가리켜야 하는데, (가)에는 공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틀린 부분은 ‘(가)-(라)’이며, 올바르게는 ‘(가)-(다)-(나)-(라)’이다.
④ X — (라)의 ‘그것’이 가리킬 ‘공간’은 (나)에서 먼저 제시되어야 하므로 (라)를 첫머리에 둘 수 없다. 틀린 부분은 ‘(라)’로 시작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가)-(다)-(나)-(라)’이다.
⑤ X — (라)는 (나)의 ‘공간’을 이어받는 문장이므로 (나)보다 앞설 수 없고, (다)의 ‘하지만’도 대조 대상인 (가) 뒤에 와야 한다. 틀린 부분은 ‘(라)-(다)-(가)-(나)’이며, 올바르게는 ‘(가)-(다)-(나)-(라)’이다.

오답 포인트

내용상 관련성만 보고 (가) 다음에 ‘공간’을 다룬 (나)를 붙이기 쉽다. 그러나 (다)의 ‘하지만’은 (가)의 ‘겉모습만 가리키는 듯하다’는 인식을 직접 반박하므로 둘을 먼저 연결해야 한다. 또한 (라)의 ‘그것’은 (나)의 ‘공간’을 가리키므로 (나)와 (라)의 선후도 고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하지만’과 같은 접속어의 대조 대상을 찾고, 다음으로 ‘여기서’, ‘그것’과 같은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앞말을 확인한다. 접속 관계와 지시 관계가 동시에 성립하도록 문장을 배열한다.

암기 포인트

(가)의 통념 → (다)의 반박·확장 → (나)의 공간 도입 → (라)의 공간 구체화이다.

NoteBase

4. 다음 중 <보기>에서 밑줄 친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보 기>

범인은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① 요즘에는 손이 부족하다.
②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③ 그는 두 손 모아 기도한다.
④ 그는 장사꾼의 손에 놀아났다.
⑤ 그 일은 선배의 손에 떨어졌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다의어 '손'이 문맥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손'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영향력·권한을 뜻한다.

핵심 개념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손'은 문맥에 따라 신체 부위, 일하는 사람, 수고나 노력, 조종하는 힘, 영향력이나 권한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손' 주변의 서술어와 문장 전체의 뜻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손이 부족하다'의 '손'은 일을 할 사람, 곧 일손을 뜻한다. '요즘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로 고쳐 풀 수 있으므로 <보기>의 영향력·권한과 다르다.
② X — '손이 많이 간다'의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수고나 노력을 뜻한다. '그 일은 수고가 많이 든다'로 고쳐 풀 수 있으므로 <보기>와 다르다.
③ X — '두 손 모아'의 '손'은 팔목 끝에 달린 신체 부위를 뜻한다. '그는 양손을 모아 기도한다'로 고쳐 풀 수 있으므로 <보기>와 다르다.
④ X — '장사꾼의 손에 놀아났다'의 '손'은 남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조종의 힘을 나타낸다. '그는 장사꾼에게 조종당했다'로 고쳐 풀 수 있으며, <보기>처럼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⑤ O — '선배의 손에 떨어졌다'는 그 일이 선배의 영향력이나 권한 아래에 놓였다는 뜻이다. '그 일은 선배의 권한 아래에 들어갔다'로 풀 수 있어 <보기>의 '손'과 같은 의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와 ⑤는 모두 '손'을 추상적으로 사용하여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④는 '놀아나다'와 결합해 남에게 조종당한다는 뜻이고, ⑤는 '떨어지다'와 결합해 누군가의 영향력·권한 아래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의어의 의미를 비교할 때에는 밑줄 친 단어만 보지 않고 함께 쓰인 서술어까지 포함해 자연스러운 말로 바꾸어 본다. <보기>의 '손이 미치다'를 '영향력·권한이 미치다'로 바꾼 뒤, 각 선지도 같은 뜻으로 바뀌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이 미치다·손에 떨어지다'는 영향력·권한, '손이 부족하다'는 일손, '손이 많이 가다'는 수고, '손에 놀아나다'는 조종을 나타낸다.

NoteBase

5. 다음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운 변동 현상을 유형화할 때, 각 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대치: XaY → XbY…… ㉮ 국물[궁물]
㉡ 축약: XabY → XcY…… ㉯ 국화[구콰]
㉢ 탈락: XaY → XY…… ㉰ 좋으니[조으니]
㉣ 첨가: XY → XaY…… ㉱ 솜이불[솜니불]

① '물난리'를 발음할 때에는 ㉠과 ㉡이 모두 일어난다.
② '짧다'를 발음할 때에는 ㉠과 ㉢이 모두 일어난다.
③ '몸값'을 발음할 때에는 ㉡과 ㉢이 모두 일어난다.
④ '막일'을 발음할 때에는 ㉡과 ㉣이 모두 일어난다.
⑤ '따뜻하다'를 발음할 때에는 ㉢과 ㉣이 모두 일어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단어의 실제 발음을 확인한 뒤, 음운의 수가 아니라 변동 전후의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대치·축약·탈락·첨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치: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음운 수는 변하지 않는다.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이다. 음운 수가 하나 줄어든다.
탈락: 있던 음운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이다. 음운 수가 하나 줄어든다.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다. 음운 수가 하나 늘어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된다. 두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대치만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대치와 축약이 모두 일어난다’이며, 올바르게는 ‘대치가 일어난다’이다.
② O — ‘짧다’는 [짤따]로 발음된다. 겹받침 ‘ㄼ’에서 ‘ㅂ’이 없어지는 탈락과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 즉 대치가 모두 일어난다.
③ X — ‘몸값’은 [몸깝]으로 발음된다. ‘값’의 겹받침 ‘ㅄ’에서 ‘ㅅ’이 탈락하고 ‘ㄱ’이 ‘ㄲ’으로 바뀌는 대치가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축약과 탈락’이며, 올바르게는 ‘대치와 탈락’이다.
④ X — ‘막일’은 [망닐]로 발음된다. ‘ㄴ’이 첨가되어 [막닐]이 된 뒤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즉 대치가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축약과 첨가’이며, 올바르게는 ‘대치와 첨가’이다.
⑤ X — ‘따뜻하다’는 [따뜨타다]로 발음된다.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는 대치와 ‘ㄷ’과 ‘ㅎ’이 ‘ㅌ’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탈락과 첨가’이며, 올바르게는 ‘대치와 축약’이다.

오답 포인트

축약과 탈락은 모두 음운 수를 하나 줄이지만 과정이 다르다. ‘짧다’의 ‘ㅂ’처럼 음운이 그대로 없어지면 탈락이고, ‘따뜻하다’의 ‘ㄷ+ㅎ→ㅌ’처럼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면 축약이다. 또한 된소리되기·비음화·유음화는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므로 대치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표준 발음을 적고 원래 형태와 한 음운씩 대응시킨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면 대치, 둘이 하나가 되면 축약, 하나가 없어지면 탈락, 없던 하나가 생기면 첨가로 판단한다. 한 단어에서 변동이 연속될 때에는 중간 발음까지 나누어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바뀌면 대치, 합치면 축약, 없어지면 탈락, 생기면 첨가이다. ‘짧다[짤따]’는 ㅂ 탈락과 ㄷ→ㄸ 대치이다.

NoteBase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唐漢書 莊老子 韓柳文集
> 李杜集 蘭臺集 白樂天集
> 毛詩尙書 周易春秋 周戴禮記
> 위 註조쳐 내 외온ㅅ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 (葉) 太平廣記 四百餘卷 太平廣記 四百餘卷
> 위 歷覽ㅅ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
> - <한림별곡> 중에서

① 사대부 계층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② 나열의 방식으로 강호가도를 구현하고 있다.
③ 시적 화자의 능력을 예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④ 시적 대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⑤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림별곡」에 나타난 표현 방식과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된 대목은 여러 서적을 나열하고, 주석까지 외우며 『태평광기』 사백여 권을 두루 읽는 모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폭넓은 학식과 독서 능력을 자랑하고 예찬한다. '경(景) 긔 엇더하니잇고'와 같은 의문형 표현은 실제 대답을 요구하는 문답이 아니라 감탄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경기체가의 특징적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박한 생활 감정'이 드러난다는 부분이 틀리다. 작품에는 다양한 고전과 문집을 익힌 화려한 학문 생활, 한림 학사층의 학문적 자부심과 과시적 태도가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한림 학사층의 학문적 자부심과 과시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이다.
② X — 서적을 나열하는 방식은 사용하지만, 그것이 '강호가도'를 구현하지는 않는다.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학문적 소양과 독서 능력을 예찬한다. 올바르게는 '나열의 방식으로 화자의 폭넓은 학식과 독서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이다.
③ O — '주석조차 내가 외운 모습'과 『태평광기』 사백여 권을 '두루 읽는 모습'을 예찬하므로, 시적 화자는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예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④ X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여러 서적과 독서 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반복하여 한 장면의 인상을 강화한다. 올바르게는 '시적 대상을 나열과 반복의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이다.
⑤ X —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엇더하니잇고'라는 물음에 실제 답변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문답 형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의문형의 설의적 표현과 후렴구를 통해 감탄과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나열의 방식'이라는 앞부분만 보면 맞아 보이지만, 제시된 대목은 자연 속 은일의 삶을 노래하는 강호가도와 관계가 없다. ⑤도 의문형 어미를 실제 문답 형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답변하는 화자가 없으므로 감탄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나열된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자연과 은일의 삶이면 강호가도와 연결할 수 있지만, 서적·학문·독서 능력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면 화자의 학식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판단한다. 의문형 문장이 있어도 실제 질문과 답변이 모두 제시될 때만 문답 형식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한림별곡」의 서적 나열은 강호가도가 아니라 학식과 독서 능력에 대한 자부심의 과시이다.

NoteBase

7. 다음 글에 나타난 '플로티노스'의 견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여기에 대리석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나는 거칠게 깎아낸 그대로이며, 다른 하나는 조각술에 의해 석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플로티노스에 따르면 석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돌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각술을 통해 거기에 부여된 '형상' 때문이다. 형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질서가 없는 질료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이다.
>
> 형상은 돌이라는 질료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며, 돌이 찾아오기 전부터 돌을 깎는 장인의 안에 존재하던 것이다. 장인 속에 있는 이 형상을 플로티노스는 '내적 형상'이라 부른다. 내적 형상은 장인에 의해 돌에 옮겨지고, 이로써 돌은 아름다운 석상이 된다. 그러나 내적 형상이 곧 물체에 옮겨진 형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플로티노스는 내적 형상이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응해서 석상 속에 내재하게 된다고 보았다.
>
>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석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플로티노스는 우리가 물체 속의 형상을 인지하고, 이로부터 질료와 같은 부수적 성질을 버린 후 내적 형상으로 다시 환원할 때, 이 물체를 '아름답다'고 간주한다고 보았다. 즉, 내적 형상은 장인에 의해 '물체 속의 형상'으로 구현되고, 감상자는 물체 속의 형상으로부터 내적 형상을 복원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① 장인의 조각술은 질료에 내재되어 있던 '형상'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② 물체에 옮겨진 '형상'은 '내적 형상'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질료 자체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한다.

③ 동일한 '내적 형상'도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의 조각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④ 자연 그대로의 돌덩어리라 할지라도 감상자가 돌덩어리의 '내적 형상'을 복원해 낸다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⑤ 감상자는 작품에 부수적 성질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함에 따라 '물체 속의 형상'을 환원시킨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플로티노스가 구분한 '내적 형상'과 '물체 속에 구현된 형상'의 관계, 그리고 감상자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과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내적 형상: 돌을 다듬기 전부터 장인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
물체 속의 형상: 내적 형상이 조각술을 통해 질료인 돌에 옮겨져 구현된 형상이다.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구현되므로 내적 형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미적 감상: 감상자가 물체 속 형상에서 질료의 수동적 성질을 버리고 내적 형상을 복원할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과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질료에 내재되어 있던 형상이 밖으로 표출되도록'이다. 형상은 원래 돌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장인의 정신 안에 내적 형상으로 존재하며, 조각술은 그 형상을 돌에 옮겨 물체 속의 형상으로 구현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질료 자체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한다'이다. 아름다움은 질료 때문이 아니라 형상 때문에 생기며, 감상자는 질료의 수동적 성질을 버리고 물체 속 형상에서 내적 형상을 복원한다.
③ O — 내적 형상은 장인의 정신 안에 하나의 원리로 존재하지만, 돌에 구현된 형상은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동일한 내적 형상도 서로 다른 모습의 조각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연 그대로의 돌덩어리'에서도 '돌덩어리의 내적 형상'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 형상은 장인의 정신 안에 존재하다가 조각술로 돌에 옮겨지는 것이므로, 조각술로 형상이 구현되지 않은 자연석을 같은 방식으로 아름답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⑤ X — 틀린 표현은 '부수적 성질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함'이다. 감상자는 질료의 부수적·수동적 성질을 버린 뒤, 물체 속의 형상으로부터 내적 형상을 복원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낀다.

오답 포인트

'내적 형상'의 '내적'을 돌의 내부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내적 형상은 질료 안에 숨어 있던 형상이 아니라 장인의 정신 안에 있던 형상이다. 또한 아름다움은 질료의 성질을 모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료의 수동적 성질을 걷어 내고 형상을 복원할 때 인식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형상의 위치와 이동 과정을 '장인의 정신 속 내적 형상 → 조각술에 의한 이전 → 물체 속에 구현된 형상 → 감상자의 내적 형상 복원'으로 정리한다. 질료 자체를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보거나 내적 형상이 처음부터 질료 안에 있었다고 보는 선지는 틀린다.

암기 포인트

아름다움의 근원은 질료가 아니라 형상이며, 내적 형상은 돌 속이 아니라 장인의 정신 속에 있다.

NoteBase

8. 다음 문장의 밑줄 친 표현을 순화한 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통해 제재 대상 국가를 견제하고 있다.
→ 두 번째 제재

② 수면 공간 제공 서비스, 짤막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웹 예능 콘텐츠 등이 패스트 힐링(fast healing) 상품으로 유행하고 있다.
→ 자투리 휴식

③ 판매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 친구를 통한 의리성 계약 등은 쿨링 오프(cooling off)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계약 철회 보증 제도

④ 민간과 정부 부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 실무단

⑤ 우리 모두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에 참여하였다.
→ 초청 홍보 여행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국어 표현의 실제 뜻과 쓰임을 파악하여 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로 순화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외국어를 순화할 때에는 낱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기능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겨야 한다. ‘secondary boycott’의 secondary는 ‘두 번째’라는 순서가 아니라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삼자에게까지 제재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세컨더리 보이콧’을 ‘두 번째 제재’라고 한 것은 secondary를 순서의 뜻으로 직역한 것이어서 실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제삼자 제재’ 또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삼자에 대한 제재’라고 순화한다.
② O — ‘패스트 힐링’은 짧은 시간에 웃거나 즐기며 피로를 푸는 것을 가리키므로, 남는 짧은 시간을 활용한 ‘자투리 휴식’이라는 순화가 문맥에 맞는다.
③ O — ‘쿨링 오프’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이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계약 철회 보증 제도’라는 순화가 적절하다.
④ O — ‘워킹 그룹’은 특정 과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집단이므로 ‘실무단’으로 순화할 수 있다.
⑤ O — ‘팸투어’는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지나 시설 등을 체험하게 하고 홍보하는 여행이므로 ‘초청 홍보 여행’이라는 순화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secondary를 무조건 ‘두 번째’로 옮기는 직역이 함정이다. 이 표현에서는 제재가 제삼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관계를 나타내므로 순서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국어의 사전적 첫뜻만 대입하지 않고, 문장 속 대상·기능·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순화어가 그 실제 개념을 정확히 담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세컨더리 보이콧은 ‘두 번째 제재’가 아니라 ‘제삼자 제재’이다.

NoteBase

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은?

> 서사의 장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서사물들을 구획 짓고 유형화하고자 하는 욕구와 무관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배타적인 범주화와 환원적인 단순화의 위험성이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르는 사실상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유형화라기보다는 직관적, 실용적, 임의적 분류에 가깝다. (㉠) 리얼리즘 소설, 판타지, SF, 멜로드라마 등과 같은 장르가 그렇다. 우리는 이들 각각의 장르들을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라 유사한 서사적 특성들로 이루어진 좌표적 군집으로 보고자 한다. (㉡) 어떤 장르들은 때로는 다른 장르와 교차할 수 있으며, 여러 장르들을 포괄하는 보다 느슨한 장르도 있을 수 있다. (㉢) 장르를 개방적이고 유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장르의 설정이 초래할 수 있는 모순점과 문제점들 때문에 그것을 아예 폐기해 버리는 것보다는 서사물들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야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		㉡		㉢
①	더구나	-	즉	-	이처럼
②	이를테면	-	즉	-	이처럼
③	가령	-	요컨대	-	반대로
④	더구나	-	요컨대	-	반대로
⑤	이를테면	-	하지만	-	반대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빈칸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예시, 부연·환언, 귀결 가운데 무엇인지 파악하여 알맞은 접속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를테면’과 ‘가령’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주는 예시 표현이다. ‘더구나’는 같은 방향의 내용을 보태는 첨가 표현이다. ‘즉’은 앞의 내용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부연·환언 표현이고, ‘요컨대’는 앞의 여러 내용을 간추려 결론짓는 요약 표현이다. ‘하지만’과 ‘반대로’는 앞뒤 내용의 대립을 나타내며, ‘이처럼’은 앞의 내용을 받아 그에 따른 판단이나 결론을 잇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 뒤의 '리얼리즘 소설, 판타지, SF, 멜로드라마'는 앞에서 말한 직관적·실용적·임의적 분류의 구체적 사례이므로, 첨가를 나타내는 '더구나'는 맞지 않는다. '더구나'를 '이를테면' 또는 '가령'으로 고쳐야 하며, ㉡의 '즉'과 ㉢의 '이처럼'은 문맥에 맞는다.
② O — ㉠의 '이를테면'은 구체적 장르들을 예로 들고, ㉡의 '즉'은 장르를 '좌표적 군집'으로 본다는 말을 장르 간 교차와 느슨한 포괄 관계로 풀어 설명한다. ㉢의 '이처럼'은 앞의 논의를 받아 장르를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이해할 때의 효용을 결론으로 제시하므로 세 표현이 모두 알맞다.
③ X — ㉠의 '가령'은 예시 관계에 맞지만, ㉡ 뒤 문장은 앞 내용을 간추리는 결론이 아니라 '좌표적 군집'의 뜻을 풀어 설명하므로 '요컨대'보다 '즉'이 알맞다. 또한 ㉢의 뒤 문장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지 않으므로 '반대로'를 '이처럼'으로 고쳐야 한다. 올바르게는 '가령-즉-이처럼'의 관계이다.
④ X — ㉠은 첨가가 아니라 예시이므로 '더구나'를 '이를테면' 또는 '가령'으로, ㉡은 요약보다 부연·환언이므로 '요컨대'를 '즉'으로, ㉢은 대립이 아니라 앞 논의에 따른 귀결이므로 '반대로'를 '이처럼'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의 '이를테면'은 적절하지만, ㉡은 앞의 견해와 대립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하지만'을 '즉'으로 고쳐야 한다. ㉢도 반대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반대로'를 '이처럼'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더구나'와 예시 표현을, ㉡에서는 '요컨대'와 '즉'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 뒤 문장은 앞 문장을 짧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적 군집'이 장르의 교차와 느슨한 포괄을 허용한다는 뜻임을 구체화한다. ㉢ 앞뒤에는 역접이나 반대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이를테면·가령', 앞말을 다시 풀어 쓰면 '즉', 앞의 논의를 받아 결론이나 적용을 제시하면 '이처럼'을 우선 검토한다. '하지만·반대로'는 앞뒤 내용이 실제로 대립할 때만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예시는 '이를테면·가령', 환언은 '즉', 앞 논의의 귀결은 '이처럼'이다.

NoteBase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둑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
>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
>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
> 이때 뚜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
>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
>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
> 날개야 다시 돋아라.
>
>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
>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 - <날개> 중에서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② 상징적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③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④ 자아 분열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⑤ 일제 강점기 시절 고통 받는 지식인의 사회 변혁에 대한 욕구가 담겨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의식의 흐름, 상징적 표현, 결말에 드러난 인물의 의지를 작품 속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체험과 내면을 직접 서술하는 방식이다. 의식의 흐름은 인물의 생각과 감각, 연상이 논리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서술 방식이다. 이 글의 '날개'는 무기력한 현실을 벗어나 잃어버린 자아와 자유를 회복하려는 소망을 상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인공인 '나'가 아내와의 관계, 거리에서의 체험,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② O — '절름발이', '날개',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 등의 표현은 주인공의 무기력과 상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③ O — 아내에 대한 의심과 자기변명, 거리의 소리와 사람들에 관한 감각적 연상이 '나'의 생각을 따라 연속적으로 제시되어 내면 의식이 드러난다.
④ O —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에는 무기력하고 분열된 현재의 자아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아와 삶의 의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사회 변혁에 대한 욕구'이다.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소외와 무기력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직접 드러난 것은 사회를 변혁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상실한 자아와 자유, 삶의 의욕을 되찾으려는 개인적 소망이다. 올바르게는 '일제 강점기 무기력하고 소외된 지식인이 상실한 자아와 삶의 의욕을 회복하려는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의 개인적 소망을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곧바로 사회 변혁의 욕구를 뜻하지는 않는다. 본문의 결말은 '나'의 날개와 비상에 집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 선지는 본문에 직접 나타난 서술 방식과 반복되는 핵심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시대적 의미를 제시한 선지는 인물이 실제로 사회적 행동이나 집단적 변화를 추구하는지 살피고, 근거가 개인의 내면 회복에만 머물면 사회 변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날개'는 사회 변혁이 아니라 상실한 자아·자유·삶의 의욕을 회복하려는 비상의 소망이다.

NoteBase

11.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천마총: Cheonmachong
② 첨성대: Cheomseongdae
③ 분황사: Bunwhangsa
④ 안압지: Anapji
⑤ 석빙고: Seokbinggo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문화재 이름의 각 음절을 정확히 옮겼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정해진 대응에 따라 적되, 필요한 음운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문항에서는 특히 '황'을 hwang으로 적는다는 점과 음절별 철자 순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천마총'은 Cheonmachong으로 적는다. '천'은 cheon, '마'는 ma, '총'은 chong에 대응한다.
② O — '첨성대'는 Cheomseongdae로 적는다. '첨·성·대'가 각각 cheom·seong·dae에 대응한다.
③ X — '분황사'를 Bunwhangsa로 적은 부분이 틀렸다. '황'은 hwang이므로 올바른 표기는 Bunhwangsa이다.
④ O — '안압지'는 Anapji로 적는다. '안·압·지'가 각각 an·ap·ji에 대응한다.
⑤ O — '석빙고'는 Seokbinggo로 적는다. '빙'의 끝소리 ng와 '고'의 첫소리 g가 이어져 철자상 nggo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whang은 얼핏 '황'의 소리와 비슷해 보여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황'은 ㅎ(h) 뒤에 ㅘ(wa)가 이어지는 hwang이므로 w와 h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또한 ⑤의 nggo는 오자가 아니라 '빙(bing)+고(go)'가 이어진 결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긴 고유 명칭을 음절별로 나누어 로마자 대응을 확인한다. 특히 h와 w의 순서, eo와 o의 구별, 앞 음절의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맞닿는 부분을 차례로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황'은 hwang이다. 분황사는 Bunhwangsa로 적는다.

NoteBase

12.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은?

>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이다. 위에 저장했던 먹이를 다시 꺼내 잘게 부수어 소화시킨다. 사람도 지난 일들을 다시 머릿속에 소환하여 그 의미와 추억을 되새김질 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정신적 반추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
> 소년은 희망을 먹고 살고, 노년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다. 나이 들면 지난 세월과 인연, 추억들을 되새김질 하며 인생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필자 역시 (㉠)(이)라는 인생의 고갯길에 서니 지나온 세월들, 그 길에서 만난 인연들을 자꾸만 떠올리게 된다. 살아온 흔적을 뒤적거리며 무언가 남기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를 드는 것이다. 70 고갯길에 섰으니 (㉢)을(를) 한번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나무가 해가 바뀌면 나이테를 긋듯이 70 고개에서 인생의 (㉣)을 한번 지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을 집필한 (㉤)이다.

	㉠	㉡	㉢	㉣	㉤
①	불혹	어깨	위	매듭	원인
②	희수	고개	뒤	질곡	이유
③	희수	어깨	앞	질곡	이유
④	고희	고개	뒤	매듭	동기
⑤	고희	고개	앞	매듭	원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나이 명칭을 찾고, 관용적으로 함께 쓰이는 말과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희는 일흔 살, 불혹은 마흔 살, 희수는 일흔일곱 살을 뜻한다. 또한 생각이나 욕구가 생겨나는 것은 '고개를 들다', 지나온 일을 되짚는 것은 '뒤를 돌아보다',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듭을 짓다'라고 표현한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앞에서 밝힌 생각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임을 나타내므로 '동기'가 알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불혹’은 40세이므로 ‘70 고갯길’과 맞지 않고, ‘마음이 어깨를 들다’와 ‘위를 돌아보다’도 자연스러운 결합이 아니다. ㉠은 ‘고희’, ㉡은 ‘고개’, ㉢은 ‘뒤’, ㉣은 ‘동기’로 고쳐야 한다.
② X — ‘희수’는 77세이므로 ㉠에는 70세를 뜻하는 ‘고희’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문맥에서는 ‘질곡을 짓다’가 아니라 ‘매듭을 짓다’이고,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유’보다 ‘동기’가 정확하다.
③ X — ‘희수’가 아니라 ‘고희’, ‘어깨를 들다’가 아니라 ‘고개를 들다’, ‘앞을 돌아보다’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다’, ‘질곡을 짓다’가 아니라 ‘매듭을 짓다’, ‘이유’가 아니라 ‘동기’가 알맞다.
④ O — 70세는 ‘고희’이고, 마음속 생각이 생기는 것은 ‘고개를 들다’, 지난 삶을 되짚는 것은 ‘뒤를 돌아보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 ‘매듭을 짓다’라고 한다. 앞의 내용은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이므로 다섯 말이 모두 문맥에 맞다.
⑤ X — 지나온 세월과 인연을 되새기는 문맥이므로 ‘앞을 돌아보다’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다’가 알맞다. 또한 앞의 생각은 책 집필의 직접적인 계기이므로 ㉣은 ‘원인’보다 ‘동기’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고희’와 ‘희수’를 모두 노년의 나이 명칭이라는 이유로 혼동하거나, ㉠만 보고 답을 고르면 틀리기 쉽다. 특히 ‘고개를 들다－뒤를 돌아보다－매듭을 짓다’라는 자연스러운 결합과 마지막 문장의 ‘집필 동기’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글에 제시된 나이와 나이 명칭을 대응시킨 뒤, 각 빈칸의 앞뒤 말이 관용적으로 결합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빈칸은 앞 문장이 결과의 원인인지, 행동을 일으킨 목적이나 계기인지를 구별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불혹 40, 고희 70, 희수 77이며, 생각은 고개를 들고, 과거는 뒤를 돌아보며, 삶은 매듭을 짓고, 집필에는 동기가 있다.

NoteBase

13.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때 우치는 이가를 구하여 보내고 얼마쯤 가다가 홀연히 보니, 저자 거리에서 사람들이 돼지의 머리 다섯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 우치가 구름에서 내려와 다투는 까닭을 물으니 한 사람이 말했다.
> "돼지 머리를 쓸 데가 있어서 사 가는데, 이 관리놈이 빼앗아 가려 하기로 다투고 있소."
> 우치가 관리를 속이려고 주문을 외니, 그 돼지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관리의 등을 물려고 하자 관리와 구경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헤어져 달아났다.
>
> - <전우치전> 중에서

① 관리가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고 있군.
② 우치와 관리를 보니 유유상종(類類相從)이군.
③ 우치의 행동은 연목구어(緣木求魚)하는 것이군.
④ 우치는 전전긍긍(戰戰兢兢)하여 주문을 외는군.
⑤ 구경꾼들이 이전투구(泥田鬪狗)하다 변을 당했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자 성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것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상황에 들어맞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이나 재물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뜻한다.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거나 모이는 일을 뜻한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로, 방법이 잘못되어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뜻한다.
전전긍긍(戰戰兢兢):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하는 모습을 뜻한다.
이전투구(泥田鬪狗): 진흙탕에서 개가 싸우듯 자기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관리는 다른 사람이 팔러 가는 돼지 머리를 빼앗으려 한다. 권세를 이용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횡포이므로 가렴주구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우치와 관리를 보니 유유상종'이라는 판단이다. 우치는 재물을 빼앗으려는 관리를 응징하며 서로 대립하므로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우치와 관리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우치의 행동은 연목구어'라는 판단이다. 우치는 주문으로 돼지를 움직여 관리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으므로, 잘못된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꾀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우치의 행동은 기지를 발휘해 관리의 횡포를 응징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우치는 전전긍긍하여 주문을 외운다'라는 판단이다. 우치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상황에 개입하여 주문을 외운다. 올바르게는 '우치는 침착하고 대담하게 주문을 외운다'라고 해야 한다.
⑤ X — 틀린 부분은 '구경꾼들이 이전투구하다 변을 당했다'라는 판단이다. 구경꾼들은 관리와 사람들이 달아날 때 함께 흩어졌을 뿐, 자기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다투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구경꾼들은 소동이 벌어지자 흩어져 달아났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한자 성어에 '다툼', '두려움', '무리'와 관련된 글자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장면의 일부와 연결하면 안 된다. 특히 ⑤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소동이 벌어졌다는 점만으로 이전투구를 떠올리기 쉽지만, 구경꾼들이 서로 이익을 다투는 장면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성어를 한 문장으로 풀어 쓴 뒤, 지문에서 그 뜻을 입증하는 행동을 찾는다. 가렴주구는 관리의 수탈, 유유상종은 같은 부류의 결합, 연목구어는 잘못된 수단과 달성 불가능, 전전긍긍은 두려움, 이전투구는 이익을 위한 추한 다툼이 있어야 성립한다.

암기 포인트

가렴주구는 가혹한 수탈, 유유상종은 같은 무리, 연목구어는 잘못된 방법, 전전긍긍은 두려움, 이전투구는 추한 이익 다툼이다.

NoteBase

14. 다음 중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아래와 같이 높임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이 발달되어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 객체를 높이는 용언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① 나는 아직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②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③ 할아버지께서는 편찮으셔서 거동을 잘 못하신다.
④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⑤ 생신을 맞이하신 할머니께서는 케이크를 잘 잡수셨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주체를 높이는 용언인 ㄱ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인 ㄹ이 한 문장에 함께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 주체를 높이는 용언: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나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ㄴ 객체를 높이는 용언: 주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객체를 '모시다, 여쭙다' 등의 어휘로 높인다.
ㄷ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사람'을 '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높일 인물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를 사용한다.
ㄹ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높일 인물의 말·집·나이·생일 등을 '말씀·댁·연세·생신'처럼 표현한다.
결정적인 구별은 용언이 높이는 대상과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ㄱ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ㄹ은 그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그분'의 '분'은 높일 인물을 직접 가리키는 명사이므로 ㄷ이고, '말씀'은 그 인물의 말을 높이는 명사이므로 ㄹ이다. ㄱ에 해당하는 주체 높임 용언은 없다. 올바르게는 ㄷ과 ㄹ이 사용된 문장이다.
② X — '여쭐'은 행위의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용언이므로 ㄴ이고, '댁'은 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므로 ㄹ이다. ㄱ에 해당하는 주체 높임 용언은 없다. 올바르게는 ㄴ과 ㄹ이 사용된 문장이다.
③ X — '편찮으셔서'와 '못하신다'의 '-시-'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므로 ㄱ에 해당한다. 그러나 높일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인 ㄹ은 없다. 올바르게는 ㄱ이 사용된 문장이다.
④ X — '피곤하셨는지'의 '-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므로 ㄱ에 해당한다. 그러나 ㄹ에 해당하는 높임 명사는 없다. 올바르게는 ㄱ이 사용된 문장이다.
⑤ O — '맞이하신'과 '잡수셨다'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므로 ㄱ에 해당한다. '생신'은 할머니의 생일을 높이는 명사이므로 ㄹ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과 ㄹ이 모두 사용되었다.

오답 포인트

'께서는'처럼 높임의 뜻을 가진 조사는 문제에서 요구한 '용언'이 아니므로 그것만 보고 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또한 '분'은 인물 자체를 높이는 ㄷ이고, '말씀·댁·생신'은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ㄹ이라는 차이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에서 '-시-'나 주무시다·잡수시다 같은 주체 높임 표현을 찾아 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명사가 인물 자체를 높이는지, 그 인물의 말·집·나이·생일 같은 관련 대상을 높이는지 확인하여 ㄷ과 ㄹ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분'은 사람 자체를 높이고, '말씀·댁·연세·생신'은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높인다. '-시-·주무시다·잡수시다'는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다.

NoteBase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햐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다)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돗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더라

(마)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 <만흥> 중에서

① (가):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어리고 햐암의 뜻'에는 화자의 겸손함이 드러난다.

② (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자세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여남은 일'은 (마)의 '인간 만사'에 해당한다.

③ (다): '그리던 님'보다도 '뫼'가 더 반갑고 좋다는 뜻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라):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자신의 처지가 소부 허유보다도 낫다고 표현하였다.

⑤ (마): 자연에 머무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인간'과 '강산'이 대비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속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와 각 구절의 표현 방식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안분지족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이고, 안빈낙도는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도를 즐기는 태도이다. 작품의 화자는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흥취를 높은 관직이나 세속의 일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화자는 자연에 띠집을 짓고 사는 자신을 남들이 비웃더라도 그것이 자기 분수에 맞는다고 여긴다. '어리고 향암'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데에는 겸손한 태도도 드러난다.

② O — (나)는 보리밥과 풋나물을 먹으며 자연에서 노니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므로 안빈낙도의 자세가 나타난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은 화자가 부러워하지 않는 나머지 세상일을 뜻하며, (마)의 '인간 만사'와 의미상 통한다.

③ O — (다)의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설의적 표현이다. 그리던 임이 오는 기쁨보다 말도 웃음도 없는 '뫼'를 바라보는 기쁨이 더 크다는 뜻을 강조한다.

④ X — (라)는 자연에서 누리는 삶이 '삼공'이나 '만승', 곧 높은 벼슬과 권세보다도 낫다고 말한다. '소부 허유가 약돗더라'는 자연을 택한 소부와 허유의 현명함을 긍정하는 말이지, 화자 자신의 처지가 그들보다 낫다는 비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자신의 처지가 소부 허유보다도 낫다'이며, 올바르게는 '자연 속 삶이 높은 관직과 권세보다 낫고,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여긴다'이다.

⑤ O — (마)는 하늘이 게으른 화자에게 '인간 만사'를 맡기지 않고 '강산'을 지키게 했다고 표현한다. 세속의 일인 '인간 만사'와 자연을 뜻하는 '강산'이 대비되며, 자연에 머무는 삶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소부 허유'가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화자와의 우열 비교로 읽는 데 있다. 실제 비교 대상은 자연 속 삶과 '삼공·만승'으로 대표되는 높은 관직과 권세이며, 소부와 허유는 자연을 택한 현명한 인물로 제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비교 관계는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와 의문 표현의 앞뒤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이 작품에서는 '삼공도곤 낫다'와 '만승이 이만하랴'를 통해 자연 속 삶과 관직·권세가 비교되고, 소부와 허유에 대해서는 '약돗더라'라는 평가가 제시됨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의 한흥은 삼공·만승보다 낫고, 소부·허유는 자연을 택한 현명한 인물이다.

NoteBase

16. 다음 밑줄 친 관용표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집 강아지들이 발을 타기 시작했다.
② 머리를 올린 새색시는 차마 부모 곁을 떠나지 못했다.
③ 김 교수는 토론에서 상대에게 밀려 코를 싸쥐고 말았다.
④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이 살았다.
⑤ 이젠 완전히 꼭지가 물렀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쓰인 관용표현의 실제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각 낱말의 본래 뜻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문제에서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굳어진 의미가 문장의 상황과 맞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속이 살다'는 사람의 속이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겉은 상한 듯해도 속은 생생하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발을 타다'는 강아지 따위가 걸음을 익혀 걷기 시작한다는 뜻이므로 강아지들이 걷기 시작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② O — '머리를 올리다'는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뜻이므로, 혼인한 새색시가 부모 곁을 떠나는 상황에 알맞다.
③ O — '코를 싸쥐다'는 무안이나 핀잔을 당하거나 기가 꺾여 풀이 죽는다는 뜻이므로, 토론에서 상대에게 밀린 상황에 알맞다.
④ X — '속이 살았다'는 표현을 해장국을 먹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뜻으로 사용한 부분이 틀렸다. '속이 살다'는 겉으로는 상한 듯하지만 속은 생생하다는 뜻이다. 이 문맥에서는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을 풀었다' 또는 '콩나물 해장국을 먹고 속이 풀렸다'로 고치는 것이 알맞다.
⑤ O — '꼭지가 물리다'는 어떤 일을 실컷 겪어 몹시 질리거나 진저리가 난다는 뜻이므로, 기다리는 일에 완전히 질린 상황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④의 '속'을 사람의 뱃속으로 생각하면 '속이 편안해졌다'는 뜻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관용표현 '속이 살다'의 '속'은 겉과 대비되는 내부를 가리키며, '속을 풀다'와 뜻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을 익숙한 낱말의 뜻으로 추측하지 않고, 관용적으로 굳어진 의미로 바꿔 문장에 넣어 본다. 바꿔 넣은 의미가 주어와 상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속이 살다’는 내부가 생생하다는 뜻이고, 해장으로 편안해지는 것은 ‘속을 풀다’이다.

NoteBase

17.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을 열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많은 단서들을 흘리게 된다. 목소리는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의 목소리가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흥분시킬 수도 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상대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내용과 언어 자체를 제외하고도 목소리에 포함된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이 이면의 감정을 비롯하여 많은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한다. 준언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소리의 고저, 속도, 톤 등이 포함된다.
>
> 정보 전달에서 목소리가 갖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전화 건너편의 상대가 미소를 짓는 것을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다. 지금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미소를 지으면 성대에서 입술 혹은 콧구멍에 이르는 통로, 즉 성도(聲道)가 짧아지면서 공명이 올라간다. 밝고 유쾌한 목소리는 우월함, 유능함, 풍부한 감수성, 온화함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연관된다. 어쨌든 목소리와 관련된 단서들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많은 준언어 중에 하나다.

① 목소리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② 목소리는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③ 목소리는 언어 그 자체이다.
④ 목소리는 정보 전달의 부가적 역할을 한다.
⑤ 목소리는 전화 통화 상대자의 표정을 알려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목소리가 말의 내용이나 언어 자체와 구별되는 비언어적 정보 전달 수단임을 이해했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목소리는 말의 내용을 실어 나르는 소리이면서, 화자의 정체성·감정·인상 등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단서이다.
준언어는 목소리에 포함된 소리의 고저, 속도, 톤 등의 요소이며, 언어 자체와는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문은 목소리가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적 특성과 연관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목소리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② O — 제시문은 목소리가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흥분시키고, 좋은 인상을 주거나 짜증 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목소리는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목소리는 언어 그 자체이다'이다. 제시문은 말의 내용과 언어 자체를 제외하고도 목소리의 비언어적 요소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므로, 올바르게는 '목소리는 언어 자체와 구별되는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한다'이다.
④ O — 목소리의 고저, 속도, 톤 같은 준언어적 요소는 말의 내용 외에도 감정과 인상 등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목소리는 언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⑤ O — 제시문은 전화 건너편 상대가 미소 짓는지를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소로 성도의 통로가 짧아져 공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목소리에서 상대의 표정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목소리가 언어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목소리 자체를 언어와 동일시한 데 있다. 제시문은 목소리를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 외의 정보까지 전달하는 비언어적 요소로 설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의 핵심 개념과 선지의 범위를 대조한다. 목소리가 말의 내용뿐 아니라 고저·속도·톤을 통해 정체성, 감정, 인상, 표정까지 전달한다면 목소리와 언어 자체를 동일시한 진술은 틀리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언어는 말의 내용이고, 목소리의 고저·속도·톤은 언어 밖의 정보까지 전하는 준언어이다.

NoteBase

18. 다음 <보기>의 <표준어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① 똬리
② 뒤웅박
③ 귀찮다
④ 뱀장어
⑤ 장사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준말과 본말 가운데 어느 형태가 실제로 널리 쓰이는지에 따라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14항은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거의 쓰이지 않을 때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 규정이다. 반대로 준말이 쓰이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똬리'는 본말 '또아리'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준말만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② X — '뒤웅박'은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사례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뒤웅박'을 제14항의 사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본말 '뒤웅박'이 널리 쓰이므로 본말만 표준어로 삼고 준말 '뒝박'은 버리는 사례이다.
③ O — '귀찮다'는 본말 '귀치 않다'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준말만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④ O — '뱀장어'는 본말 '배암장어'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준말만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⑤ O — '장사치'는 본말 '장사아치'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준말만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뒤웅박' 자체가 표준어라는 사실만 보고 제14항의 사례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해당 말이 표준어인지가 아니라, 준말과 본말 중 어느 쪽을 남긴 사례인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의 본말과 준말을 짝지은 뒤 실제로 널리 쓰이는 쪽을 확인한다. 준말이 우세하면 준말만, 본말이 우세하면 본말만 표준어로 삼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똬리·귀찮다·뱀장어·장사치는 준말을 남기고, 뒤웅박은 본말을 남긴다.

19.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
>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 - <자화상>

① 1연에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간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② 2연에 드러난 '우물' 속 풍경으로 보아 이 시의 배경은 맑은 가을 달밤이라고 볼 수 있어.
③ 3연에서 '우물' 속의 '사나이'는 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결국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④ 4연의 '도로'나 5연의 '다시'에는 화자가 '사나이'에 대해 갈등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⑤ 6연은 2연을 반복하면서도 시구를 추가함으로써 자아의 사회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물에 비친 '사나이'의 의미와 그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품의 자기 성찰 과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물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공간이고, 우물 속 '사나이'는 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화자는 사나이를 미워하고, 가엾게 여기고, 다시 미워하다가 그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연민, 그리움이 교차하는 내면적 성찰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모습은 화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필요했음을 보여 준다.

② O —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는 표현은 맑고 깊은 가을밤의 풍경을 형성한다.

③ O — 우물 속 '사나이'는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볼 때 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시 전체에서 화자가 마주하고 성찰하는 자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O — 화자는 사나이가 미워 돌아갔다가 '도로' 와서 보고, 다시 미워져 돌아간다. '도로'와 '다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연민과 그리움을 느끼는 양가적 태도가 반복됨을 나타낸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자아의 사회적 성장을 보여 주고 있어'이다. 6연은 2연의 자연 풍경을 반복한 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를 덧붙여 사나이가 화자의 기억과 내면에 자리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이 시구가 자아에 대한 내면적 성찰의 심화를 보여 준다고 해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마지막 연에 새로운 시구가 추가되었다는 형식적 변화만 보고 이를 곧바로 '성장'과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작품에는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 변화가 제시되지 않으며, 화자의 시선은 끝까지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한다. 따라서 '사회적 성장'이 아니라 '내면적 자기 성찰'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적 대상이 화자 자신의 분신인지 먼저 확인하고, 화자의 감정이 어떤 순서로 변하는지 따라간다. 그다음 선지의 해석 범위가 작품의 근거를 넘어서는지 점검한다. 이 작품처럼 타인·공동체와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성장'이라는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다.

암기 포인트

우물은 성찰의 공간, 사나이는 화자의 자아, 감정의 반복은 자기 부정과 연민·그리움의 교차이다.

NoteBase

20. 다음 중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행색이∨초라한∨게∨보아∨하니∨시골∨양반∨같다.
② 이처럼∨희한한∨구경은∨난생∨처음입니다.
③ 이제∨별볼일이∨없으니∨그냥∨돌아갑니다.
④ 하잘것없는∨일로∨형제∨끼리∨다투어서야∨되겠소?
⑤ 동생네는∨때맞추어∨모든∨일을∨잘∨처리해∨나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파생어처럼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은 붙여 쓰고, 각각 독립된 단어는 띄어 쓰는 원칙을 실제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아하니', '난생처음', '하잘것없다', '때맞추다'처럼 한 단어로 인정되는 말과 '-끼리', '-네' 같은 접미사가 붙은 말은 붙여 쓴다. 반면 '별 볼 일'처럼 각각의 단어가 독립된 구성을 이루면 띄어 쓴다. 본용언 뒤의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므로 '처리해 나갔다'로 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보아 하니'의 띄어쓰기가 틀렸다. '보아하니'는 한 단어이므로 '행색이 초라한 게 보아하니 시골 양반 같다.'로 쓴다.
② X — '난생 처음'의 띄어쓰기가 틀렸다. '난생처음'은 한 단어이므로 '이처럼 희한한 구경은 난생처음입니다.'로 쓴다.
③ X — '별볼일이'의 띄어쓰기가 틀렸다. 이 문맥에서는 '별 볼 일이'로 띄어 '이제 별 볼 일이 없으니 그냥 돌아갑니다.'로 쓴다.
④ X — '형제 끼리'의 띄어쓰기가 틀렸다. '-끼리'는 일부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이므로 '하잘것없는 일로 형제끼리 다투어서야 되겠소?'로 쓴다.
⑤ O — '동생네', '때맞추어'는 붙여 쓰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갔다'는 각 단어와 보조 용언을 알맞게 띄어 썼다. 따라서 문장 전체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띄어쓰기 단위가 발음상의 끊김과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보아 하니', '난생 처음'처럼 한 단어를 잘못 띄거나, 반대로 '별 볼 일'을 모두 붙이기 쉽다. 또한 '형제끼리'의 '-끼리'를 조사처럼 보고 띄는 것도 이 문항의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파생어와 접미사가 붙은 말을 찾고, 그다음 관형어와 의존 명사 등 독립된 단어의 경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원칙적 띄어쓰기를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보아하니·난생처음·형제끼리·때맞추어는 붙이고, 별 볼 일·처리해 나가다는 띄어 쓴다.

NoteBase